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21, No. 1, 2010

멀티헤비테이션의 발전 가능성 및 수요특성 분석

A Study on the Growing Trend of Multi-habitation and its Demand Analysis

최 정 민*
Choi, Jung-M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cept, the necessity, and the increase of popularity of multi-habitation, a new life style in which inhabitants in urban areas reside in primarily condominiums during weekdays and retreat to dwellings in rural areas on the weekends. This paper also focuses on finding implication messages from analyzing the demand of multi-habitation in a survey which was conducted for 735 people who live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s in July 2009. Analysis of literature shows that based on five aspects (population structure, social economy, lifestyle, tourism, and housing market) this dynamic lifestyle, multi-habitation, is believed to be common in South Korea, and may increase in popularity in the near future. The results of the survey illustrate that the respondents show high interest in multi-habitation, and their most preferred locations are the green areas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are one to two hours away by car. Moreover, regarding the participants' preferences in rural areas they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ose who want to reside in a nature environment, those who want to reside near family and in a close community, and those who want to reside in an environment that has essential facilities and easy accessibility.

Keywords : Multi-habitation, Semi-Sedentism, Population Interchange, Demand Analysis, Lifestyle
주 요 어 : 멀티헤비테이션, 반정주, 교류인구, 수요분석, 라이프스타일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근년 우리나라는 급격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듯하다. 성장사회에서 중시되었던 생산성이나 효율성, 회사나 조직 일변도 중시의 생활상에서 점차 가족의 단란을 중시하는 생활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물질적 풍요 못지않게 마음의 풍요도 중시함에 따라 친환경, 웰빙 등 질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가족 단위의 전원생활체험형관광(그린투어리즘)이 늘고 있다. 한편, 주생활에 있어서도 단위 주택내부의 실내 환경 중시 못지않게 주택을 둘러싼 외부 단지나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듯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여가 및 주생활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도시주거에 있어서, 주택은 여전히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각인되어 적잖은 사람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유목민적 거주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 단위 도시의 주거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이나 희망 주거가치관과는 별 상관없이 지역 주택문제의 하나로만 여겨, 주택의 양적 부족과 질적 수준 향상과 같은 기본적 문제해결책을 해당 지역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였다. 즉,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택문제를 주변 지역이나,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과 같은 보다 광역 차원에서 연계·접근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고 하겠다. 이같이 단위 도시지역 안에서 만의 주거문제 대안 모색은 결과적으로 단위 도시 주거문제의 양적 확대나 연담화(urban sprawl)와 같은 또 다른 도시문제를 잉태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비도시지역에서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정주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지역 공공서비스 및 기초생활 관련 서비스의 부족, 지역의 문화나 경제 활력의 쇠퇴 등, 소위 '지역사회'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특별법 제정, 농어촌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책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농어촌 지역[1]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도시민을 그곳으로 이주내지 정착·정주시킬 것인가라는, 말하자면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민의 농어촌 지역으로의 이주나 정착과 같은 일방향적 거주에 무게 중심을 두기 보다는, 도시민이 그들의 생활터전인 도시지역을 삶의 주요 무대로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부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31-C00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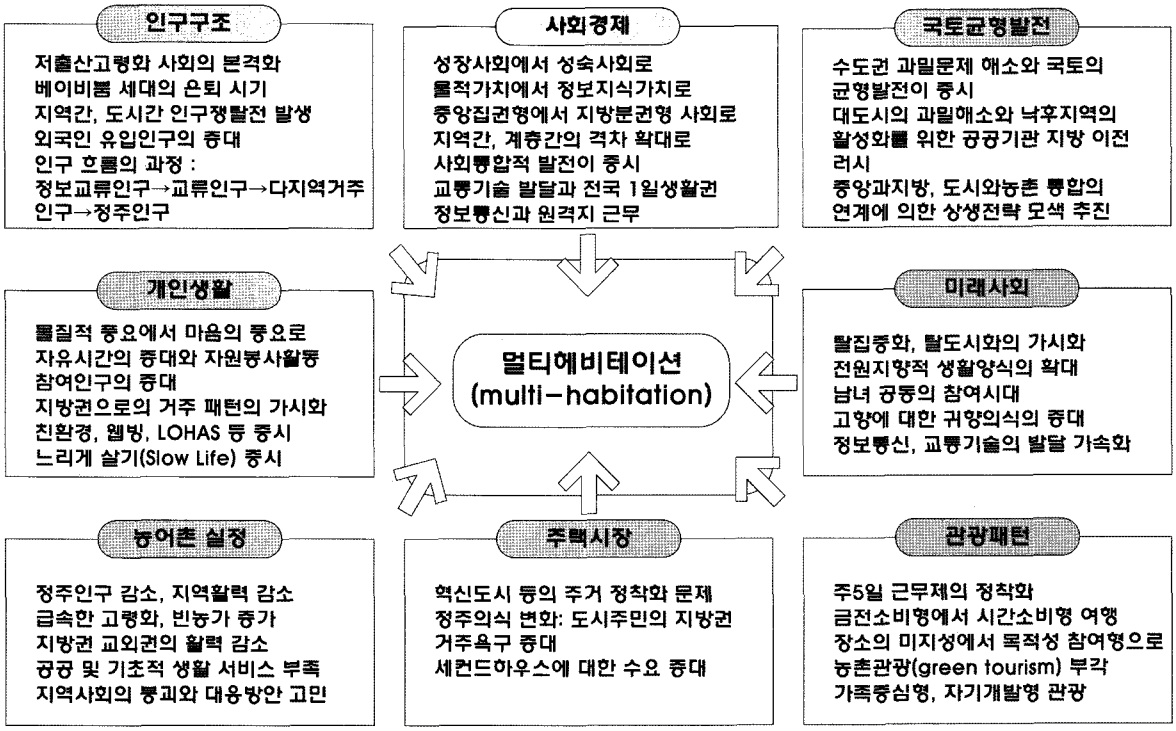

그림 1. 멀티헤비테이션(다지역거주)을 둘러싼 국내 환경의 변화

하면서,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오가면서 거주하는 주생활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본 연구과제에서는 '반정주(半定住)'로 지칭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반정주란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하는 '정주'와, 그와 반대로 잠시 머무는 '방문' 사이에 위치하는 '동태적 형태의 거주 패턴'으로 일단 정의하고, 이를 '멀티헤비테이션'(다지역거주; multi-habitation, 이하 '멀티헤비')으로 명명하여 논의를 진행코자 한다[2]. <그림 1>은 향후 국내 멀티헤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및 발전가능성을 사회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와 결부시켜 도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멀티헤비의 향후 국내 도입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과 개념 등을 정리하고, 멀티헤비 주생활 패턴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 특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향후 새로운 주거문화 패러다임에 대비하는 하나의 논점을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도시문제와 농어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 대안으로 그 잠재적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2. 멀티헤비 논의의 필요성

확실히 도시민의 농어촌 지역으로의 거주에 대한 욕구와 니즈는 증대하고 있으며, 고령화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곧 정년퇴직을 맞이할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특히 도시생활자는 '고향'에 대한 귀향의식이 유난히 각별한 것으로 나타났다[3].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도시민의 귀농(이주용)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간조성사업들은 도시인구의 욕구와 동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말하자면, '도시→농어촌' 지역으로의 이주와 같은 일방향적 정태모형(static model)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와는 달리, '도시↔농어촌' 지역에서의 거주와 같은 쌍방향적 동태모형(dynamic model)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인구구조가 갖는 역동적 특성을 반영하고 순환형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멀티헤비는 도시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완충작용을 수행할 것이다. 실제로 도시민의 지역 정착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발상은 중요한데, 농어촌 지역사회에 어느 날 갑자기 도시민이 나타나 이주하는 것은 도시민이나 농어촌 지역주민 모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진적 이행과정으로서 교류를 통한 쌍방향적 주생활 패턴이 필요한데,

1) 본 연구에서 '농어촌'이란, 원칙적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지역을 지칭하되, 편의상 도시주변부의 비도시지역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코자 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반정주와 멀티헤비는 반드시 도시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농어촌 지역 중심의 5村2都(5일은 농어촌 지역에서 2일은 도시지역에서)의 거주 패턴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5都2村과 같은 도시민의 거주 패턴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논의한다. 한편, 송미령(2006)에서는 5都2村을 '체재형 수요'로 5村2都를 '정주형 수요'로 분류하고 있다.

3) 2005년 10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이주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도시민 중 56.1%는 농어촌 이주의향이 있으나 10년 내 이주 목적으로 준비 중인 사람은 고작 10.9%에 불과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멀티헤비로 명명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의 동적 거주 패턴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착된 지 오래다. 예컨대, 구미에서는 '타임쉐어(timeshare)[4]'란 형태의 주생활 패턴이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관련 논의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정부 산하 여러 부처[5]에서 국토 및 주택정책의 중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는 왜 이러한 동적 주생활 패턴이 정착화 되었고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나아가 일본과 같은 곳에서는 왜 이러한 논의를 농어촌문제와 연계시켜 국토지역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6]. 자료를 수집하고 논점을 정리하면서 멀티헤비의 개념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잠재적 유용성이 클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접근이나 논의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3. 연구방법 및 기존 연구

1) 연구방법

본고는 크게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로 구성되는데, 문헌고찰에서는 멀티헤비와 관련한 논의의 필요성과 개념 정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멀티헤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어, 멀티헤비 관련 이론적 논의는 이웃 일본의 자료를 많이 참조하였다. 설문조사는 멀티헤비에 대한 우리나라 수도권 소재 도시민의 수요 특성을 조사한 것으로, 귀농과 전원생활에 관심을 가진 온라인카페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735명의 유효 샘플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 기존 연구 리뷰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나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와 관련해서 살펴본 국내자료는 개략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관한 문헌이다. 농어촌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농어촌민과 도시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민과 농어민의 공동생활을 위해 조성된 구체적 공간을 말한다(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5; 김태연외, 2006). 장익근(2007)은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 자체 시범사업 지구의 추진현황, 관련 한국농촌공사의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시범사업에 앞서 복합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민의 수요 및 농어촌 주민들의 수용 태세에 대한 설문조사[7]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문제와 농어촌문제를 전략적 상생관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공간 창출'이라는 매개 수단을 이용하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 논의의 주안점은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이주와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도농통합형 정주기반 구축에 관한 문헌으로 광역적 국토 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 의한 정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도시민의 농지소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한계농지에는 도시자본이 진출하여 전원주택이나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한 때 '반값 골프장'으로 한계농지 활용방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농촌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농촌에 대한 장기적 미래상 아래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박재길외, 2002).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면서 동시에 광역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라 농촌의 위상 및 농촌계획체계 등의 재고를 통해 국토개발계획상에 부합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황한철, 2006). 또한 도농통합의 관점에서 이들 지역에 적합한 주거단지의 방향으로, 직주근접 및 자족성을 위한 복합개발, 지역 커뮤니티 보존, 친환경 개발 등 구체적 설계 및 계획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서수정외, 2003).

셋째, 그린투어리즘의 일환으로 녹색체험마을, 녹색농촌조성사업, 농촌정보화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헌이다. 도시주민이 상정하는 농촌상과 농촌관광에 대한 요구 및 인식구조를 살펴본 연구(김익환외, 2009),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특성을 고찰한 연구(유기준, 2009), 녹색체험마을 사업을 육성,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직의 활성화 및 조직 리더의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윤성이, 2005), 영국과 일본의 농가민박의 발생요인과 전개과정을 알아본 연구(장면주외, 2006) 등이 이러한 것들이다. 한편, 서구 유럽에서 서비스농업의 발달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오현석, 2004)도 이 부류에 속할 것 같다.

이상과 같이 멀티헤비와 관련된 국내 대부분의 문헌은

4) 타임쉐어란 소유권의 형태나 자산을 사용할 권리 또는 그러한 자산을 서술하는 용어이다. 이들 자산은 전형적으로 리조트형 콘도미니엄으로, 복수의 권리자가 자산 사용 권리를 공유하고 각자는 일정한 기간(거의 매년 같은 시기에 1주일간)을 나눠 갖는다. 주호(Unit)는 부분적 소유권 또는 임대나 사용 권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각자는 자산의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예컨대 內閣府政策統括官(2006), 國土交通省國土計畫局(2005), 國土交通省廣報誌(2006), 國土交通省都市・地域整備局(2008), 總務省自治行政局過疎對策室(2005), 農林水產省農村振興局(2005a, 2005b), 總務省自治行政局過疎對策室(2005) 등에서의 논의 참조.

6) 예를 들면, 日本總合研究所(2007)에서는 지역의 활력과 재생의 열쇠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창출에 의한 지적, 문화적 행위에 있다고 보고, 향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지역재생 실현을 위한 정책 전개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7) 설문내용은 농어촌생활에 대한 태도, 농어촌 체험관광(경험유무, 의향, 동반자, 활동내용, (체재형)주말농원의 이용 의향, 농어촌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이주계획 및 이주에 따른 지원희망 사항 등이다. (자료: 송미령외(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설문조사 결과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재 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나 또는 투어리즘에 관한 논의 중의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거정책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II. 멀티헤비의 개념적 특성과 발전 가능성

1. 정주 관점에서의 개념적 특성

1)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정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생활의 거점들이 주거를 통해 복수화(複數化)되는 것을 중시하는 멀티헤비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정주가 갖는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주(定住)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산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일정한 곳'이 의미하는 특정 지역의 '장소성'이라는 개념과, '자리를 잡고 삶'이라는 시간적 '지속성'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정주의 의미에는 결코 가변적이며 일시적일 수 없는 주거(dwelling)가 갖는 고정적 이미지와 거주(habitation)가 갖는 주생활 관습이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듯하다. 나아가 '정주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정서나 성향을 말하며, 이러한 정주성은 주거환경이 좋을수록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낮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유사 용어로는 '거소(居所)'가 있는데, 이는 '살고 있는 곳'을 의미하며, 법률 용어에서는 이를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과거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이주에서 정주로 옮겼던 삶의 패턴이 근대 산업사회와 현대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주 형태로 삶의 패턴이 다양화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이주 형태를 추구하는 비율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주하는 노마드족형 커뮤니티, 정보통신의 발달로 가상공간을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보헤미안 기질에다 부르주아지의 낭만성이 강한 보보스 등의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반인이 웰빙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원생활의 체험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주생활에서의 동적(dynamic) 개념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음을 상기시킨다.

2)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류인구

상기 정주의 개념을 인구와 결부시켜 생각해 보자. '정주인구'란 정주하는 지역의 인구를 말하며, 야간인구와 거의 유사한 것이다. 반대로, 관광 등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유동(이동)인구' 또는 '교류인구'라고 부른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점점 곤란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교류인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고 행동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 지역의 활력이 쇠퇴하는 것이 현재 농어촌 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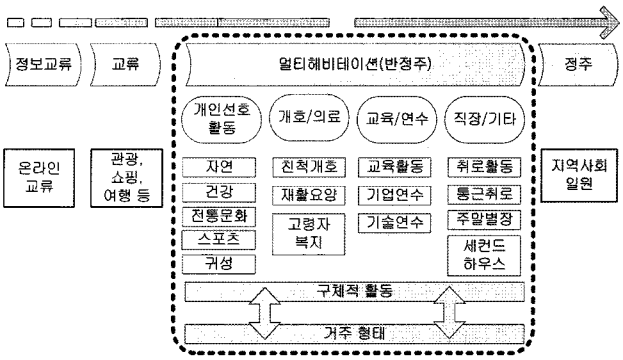

그림 2. 인구의 동태적 흐름의 관점에서 본 멀티헤비 위치
(출처: 國土交通省(2005)을 참조하여 필자 가필 및 수정)

직면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주인구만이 아닌 유동인구, 즉 교류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접근이 그래서 중요하다.

근래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정주에 이르기까지 인구의 동태적 특성을 <그림 2>에서와 같이 4가지 형태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정보교류인구(情報交流人口)란 기초 지자체가 관할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터넷, 우편이나 팩스 등과 같은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면서 등록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교류인구'의 형태로 추계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상자의 분류기준에 있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등록된 특정개인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어느 지역에 정주에 이르기까지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인 "정보교류인구→교류인구→멀티헤비인구→정주인구"의 맥락에서 본다면, 멀티헤비는 정주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게다가 멀티헤비에 이르기까지 유발되는 교류인구와 정보교류인구의 증가는 정주로의 이행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인구라고 하겠다.

2. 멀티헤비에 대한 각국의 논의

1) 우리나라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멀티헤비(테이션)'을 용어 구성 측면에 본다면 '다수/복수(multi)'를 뜻하는 말과 '주거(habitation)'를 뜻하는 말을 조합한 조어가 되어 '다지역(복수지역)거주'로 간단히 옮길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북유럽, 아프리카, 일본 등 지역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최근 매스컴에서는 국내 멀티헤비를 "도시와 농촌 등 서로 다른 지역에 각각 집을 마련해 양쪽에 모두 거주하는 주거 트렌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배경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교통 여건이 좋아진 가운데 웰빙 추구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겨난 현상이라고 소개하였다[8]. 한편, 전원주택의 확장 개념에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피데스개발이 한국갤럽조사

8) 중앙일보 2009년 11월25일자; <새 주거 트렌드 '1억에 전원 주택'>

연구소와 공동으로 선정한 2009년 주거공간 7대 트렌드에서는 "소형 전원주택에 '텃밭' 개념을 조합한 신개념 전원주택"으로 소개하면서, 웰빙, 로하스 등 여유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촌체험 중심의 실속형 전원주택으로의 이른바 멀티헤비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멀티헤비에 대해 이제야 초기형태의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멀티헤비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확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일본

일본 도시계획용어사전(ぎょうせい)에 따르면 멀티헤비테이션을 "복수의 거주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도시지역에 있어서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더하여 주말 이용을 위해 교외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교외에 상시 거주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직주근접 주택을 도시지역에 가짐으로써 거주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財團法人ハイライフ研究所, 1998). 또한 일본 부동산용어사전에서는 멀티헤비테이션 구상을 "도시노동자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에 넓은 집을 가지고 주말에는 이러한 전원도시형주택(세컨드하우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평일에는 직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싱글세대용 주택, 즉 도시형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고도의 도시기능과 전원지대의 풍부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향유하자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멀티헤비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유사한 용어가 정부관계 기관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멀티헤비테이션'이라는 용어는 1987년에 책정되어 2000년을 목표연차로 한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9]이라는 공식적 계획문서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채택하였다. 당시 논자에 따라서 멀티헤비테이션의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개략적 공통점은, "거점 주택과 더불어 세컨드하우스의 활용에 의하여 평일은 통근에 편리한 도시지역의 주택에 거주하고, 주말은 자연환경이 뛰어난 전원지대의 여유로운 주택에서 지내는 것"이었다(日本住宅協會, 1987). 이러한 멀티헤비의 개념은 1998년에 책정된 제5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는 '다자연거주지역'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가능케 하는 국토의 프론티어로서 위상매김되었다. 이에 의거 2000년에는 '과소지역 자주촉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 총무성 자치행정국은 관광과 교류가 도시주민이 멀티헤비를 시작하는 주요 계기라고 하면서 '교류거주'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2003년 농림수산성에 의해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의 이름으로 채택된 용어에서는 그린투어리즘과 더불어 정주와 반정주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쌍방향에서 왕래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정의하였다.

표 1. 일본 멀티헤비테이션 관련 주체별 관련 용어와 정의

용어	키워드	정의
교류거주 / 총무성 (1987)	과소지역, 관광/교류, 다자연거주지역	도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회지와 시골의 양쪽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장소를 가지고 사업, 여가, 취미, 학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면서, 시골에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생활 스타일
도농공생대류 / 농림수산성 (2003)	듀얼라이프, 왕래	도시와 농산어촌을 왕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넓혀 도시와 농어산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호 지역의 매력을 서로 이해하여 '사람, 물건, 정보'의 왕래를 활발히 하기 위한 것.
2지역거주 / 국토교통성 연구회 (2005)	교류인구, 정주인구, 베이비붐 세대 (塊世代)	도시주민이 본인이나 가족의 니즈 등에 부응하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농산어촌 등의 동일지역에서 중장기(1~3개월 정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체재함으로써 당해 지역사회와 일정 관계를 가지며 도시 주거에 덧붙여 생활거점을 가지는 것

출처: Wikipedia 및 관계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

한편, '2지역거주'는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용어로 국토교통성 연구회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 등을 예상하여 도시주민이 일정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정의하여 교류인구와 정주인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연구회의 장래 멀티헤비 인구에 대한 현황 추계에 따르면[10], 현재 100만명(2.5%)에 이르는 멀티헤비 인구가 2010년에는 190만명(4%), 2020년에는 680만명(17%), 2030년에는 1,080만명(29%)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총무성의 교류거주, 농림수산성의 도농공생·대류, 국토교통성의 2지역거주 등 관계기관마다 용어와 주안점이 다소 상이하지만 지향하는 방향성에서는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상호 연계에 의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 구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미에서는 오래전부터 타임쉐어 방식의 주택 공급이 보급되어 정착되어 있다. 타임쉐어는 멀티헤비의 실현과 지역 활성화 및 관광 진흥 등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쉐어는 원래 1960년대 알프스 지방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유럽과 미국에 널리 보급된 것으로, 리조트 지역 등에 있어서 거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콘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권리의 설정형태가 다양하

9) '다극분산(多極分散) 국토 구축'을 기본목표로 하여 교류네트워크 구상에 의거한 개발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멀티헤비와 관련하여 '도시와의 광역적 교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자유시간의 대폭적 증가에 대응하여 도시주민의 자연과의 교류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교류를 활용한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중략)…도시주민 등의 여가를 중시한 생활 니즈의 충족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복수 주택의 이용, 퇴직 및 전직자, 예술가 등의 농산어촌 거주 등의 멀티헤비테이션(복수지역거주)을 추진함과 동시에…(생략)"

10) 國土交通省國土計畫局(2005) 「二地域居住」の意義とその戰略的支援策の構想

다는 점, 권리 보유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 가능하며, 권리를 교환하는 프로그램과 마켓[11]이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합법적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생활의 거점을 해외에 옮기거나, 또는 거주 국가를 전전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여행자(Perpetual/Permanent traveler; PT)'라고 부른다. 법적 영주 신분이 없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이나 사법적 의무, 국방의 의무와 같은 법적 의무가 면제된다. 일부 PT들은 매우 부유한 개인들로서 국가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 일부 PT나 고정된 주거 없이 옮겨 다니며 사는 사람들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이유에서 주로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을 채용하기 위해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채용하기도 한다고 한다[12].

상기 각국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멀티헤비테이션이란 일종의 세컨드하우스 체재의 확장개념으로, 정주 개념의 거점주택과 비정주 개념의 활동주택 사이를 왕래하는 라이프스타일로 간략히 서술할 수 있다. 다만,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데, 구미와 달리 일본에서는 도시민이 활동주택 소재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저출산고령화 등 일찍이 일본이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하여 향후 비슷한 형태의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3. 국내 멀티헤비의 발전 가능성

1) 인구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에서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통계청이 발표하였다. 2006년 농림부와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은퇴 후 농촌이주·의향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 도시민 중 56.3%는 은퇴 후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퇴직에 따라 여행과 전원생활 인구가 증가하였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은퇴와 함께 레저용 차량(RV)을 이용, 전국 곳곳을 떠도는 유목민 생활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 수는 개략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였다[13].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아사히신문이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5,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가량이 제2의 인생으로 '전원생활'을 꼽았다. 700여만명의 단카이 세대 중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50% 정도로 이들 중 절반가량이 취업 등을 위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며,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지역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될 것을 예상하여 각 지자체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14].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도시와 전원생활을 왕래하며 거주하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멀티헤비 또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사회경제의 변화

<그림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향후 정보통신의 발달과 재택근무 및 주5일제 근무의 발전, 전원 지향적 생활양식의 확대 등으로 멀티헤비는 확산될 것으로 본다.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정주에 대한 의식이 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된 의식은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른 1일 생활권 영역의 확대에 따라 멀티헤비의 공간적 영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도 중시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번영 못지않게 역사·전통, 자연, 문화·예술 등도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근래에는 웰빙, 친환경, LOHAS, 느리게 살기(Slow Movement) 등이 트렌드이다. 더욱이 원래 자동차 운전에서 저속 기어로 전환하여 속도를 줄이자는 의미의 다운시프트(Downshifting) 트렌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풍요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추구하자는 삶의 방식으로, 삶에서 인생의 기어를 낮춰 긴장을 줄이고 여유를 갖자는 것이다. 그 형태는 직업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대도시를 떠나 소도시나 농촌으로 향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들은 모두 멀티헤비를 촉발할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관광패턴(tourism)의 변화

주5일제 근무의 정착에 따라 자녀들의 자연학습과 농촌체험 및 심신수련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방의 도시와 촌락에서의 생활문화, 자연, 농산물 등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전원생활체험형 관광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과거 미지의 장소를 방문하여 금전을 소비하는 형태에서 탈피하여 목적(테마)을 갖고 시간을 소비하는 형태로 여행의 구도 또한 변화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미국에서는 자원봉사와 여행을 합친 용어인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이 관광업계의 '효자 상품'으로 뜨고 있다고 한다[15]. 현재의 볼런투어리즘의 용어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여행한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공간 영역을 좁혀 국내로 한정하면 멀티헤비와 쉽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11) 국제적 교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주요기업으로는 II(Interval International), RCI(Resort Condominiums International, 현재 Wyndham Worldwide 소속) 등이 있다.
12) http://en.wikipedia.org/wiki/Perpetual_traveler
13) 문화일보 2007년 8월 18일자: <美 베이비붐 세대 '新 유목민' 뜬다>
14) 한국경제신문 2007년 1월 17일자: <단카이세대 퇴직 日경제 바꾼다 - 인생 2막'은 전원생활·봉사활동>
15) 아시아투데이 2009년 11월 10일자: <美 여행+자원봉사(볼런투어리즘) 새 트렌드>

5) 주택시장의 변화

세컨드하우스나 전원주택 단지 등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그 열풍은 레저와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리조트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부동산 투자 형태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며칠 묵어가는 단순 이용개념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정주형 스타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점차 주택시장에서는 '또 다른 나의 집'이라는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에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16]. 보도에 따르면[17], 세컨드하우스가 향후 주택시장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상당수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세컨드하우스 수요자가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세컨드하우스 개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 도시에 정주인구를 끌어 모으려면 그 사전단계로 이들 세컨드하우스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 크게 5가지의 관점에서 국내 멀티헤비의 발전 가능성을 논하였다. 무엇보다도 멀티헤비 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 본격화, 인구감소 시대에서 교류(특히 도농교류)의 중요성, 그린투어리즘 등 여가패턴의 변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III. 도시주민의 수요 특성 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멀티헤비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이상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귀농과 전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카페[18]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불특정 일반 도시민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멀티헤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을 것이며, 또한 귀농과 전원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문방법에서 설문 취합은 복수의 피설문자가 중복 답변을 할 수 없도록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실시하여 집계하였다. 통계분석은 S언어의 S-PLUS 6.1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멀티헤비에 대한 개념적 정의[19]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의향, 멀티헤비에 대한 정비조건(자연환경, 인문환경, 행정지원), 피설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조화하였다.

2. 수요 특성 분석

1) 피설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에서 피설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68%인 가운데, 연령은 40~50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20대 이하는 멀티헤비에 대한 인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735)

구분	세분(level)	빈도	비율(%)
성별	여자	232	32
	남자	503	68
연령	30대	74	10
	40대	269	37
	50대	340	46
	60대 이상	52	7
동거 가족수	2인 이하	154	21
	3인	222	30
	4인	267	36
	5인	77	10
	6인 이상	15	2
가족 유형	독신	38	5
	부부	126	17
	2세대(부부+자녀)	467	64
	3세대(조부모,부부,자녀)	84	11
	기타	20	3
직업	자영업	206	28
	사무직	110	15
	전문직	182	25
	관리직	55	7
	전업주부	70	10
	무직/은퇴/기타	112	15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88	12
	200만원대	128	17
	300만원대	194	26
	400만원대	155	21
	500만원 이상	170	23
거주 주택유형	단독주택	125	17
	다세대・연립주택	127	17
	아파트	449	61
	초고층주거복합건물	18	2
	오피스텔・기타	16	2
소유 형태	자가	537	73
	전세	143	19
	월세	23	3
	기타	32	4
거주 지역	서울	75	53.2
	경기	43	30.5
	인천	14	9.9

16) 중앙일보 2007년 12월 10일자: <도심 속 세컨드하우스: 레저+휴양 뜬다고요?>

17) 프라인경제 2007년 6월 26일자: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가 뭐지?>

18) 귀농 및 전원생활 관련하여 현재 온라인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성화 되어 있는 카페의 운영진과 접촉,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귀농사모:http://cafe.daum.net/refarm). 이 카페모임은 2001년에 처음으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되었고, 회원수는 약7만여 명이며, 주 회원층은 50대이지만 60대 이상인 장년층과 30~40대 청년층에서도 귀농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식과 관심이 적을 것이라 판단하여 생략하였다. 가족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동거형이 전체의 2/3이며, 이들 2세대 동거형 가족수는 3~4인이 전체의 55%이상을 차지한다. 직업에서는 전업주부와 무직/은퇴/기타 등이 설문대상자의 25%를 차지하며, 가족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23%이다.

2) 멀티헤비에 대한 관심도 등

(1) 멀티헤비에 대한 관심도

멀티헤비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99%인 대다수가 관심이 있다고 표명하였는데 이중에서도 77% 이상은 매우 관심 있다고 하여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직업과의 관계에서, 특히 '관리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멀티헤비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매우관심: 87%, 약간관심: 11%, 없음: 1.8%).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과 멀티헤비에 대한 관심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멀티헤비에 대한 관심도가 큼을 알 수 있었지만 상관관계는 미미하였다[20].

(2) 멀티헤비 실행 시 동행 예정자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예상대로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응답자 중에는 친구나 동호회 멤버와 함께 멀티헤비를 실행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족유형에서 독신과 가족세대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독신의 경우 동행 예정자로 가족(42%), 친구(24%), 기타(24%)의 순으로 선호하는데 비하여, 가족세대(부부/2세대/3세대)에서는 가족(81~83%), 친구(7~11%), 동호회(4~5%) 순으로 응답하여 가족세대 일수록 '가족'을 동행하고 싶다고 하였다.

(3) 멀티헤비에 대한 실행 의향

한편, 실행할 의향에서는 여러 조건(제약)이 해결되면 실행하고 싶다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41%), 제약이 있지만 실행하고 싶다는 비율(30%)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비율도(27%)도 상당 부분 차지하였다.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과 멀티헤비에 대한 실행 의향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멀티헤비 실행에 대한 의지가 큼을 알 수 있지만 그다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았다[21].

표 3. 멀티헤비에 대한 관심도 등 (N=735)

구분	세분(level)	빈도	비율(%)
관심도	매우 관심	568	77
	약간 관심	160	22
	관심 없음	7	1
멀티헤비 실행시 동행 예정자	가족	577	79
	친구	78	11
	회사동료	2	0
	동호회	33	4
	기타	45	6
실행 의향	곧 시작 예정	199	27
	제약 있으나 실행 희망	219	30
	제약 해결시 실행	298	41
	모름	19	3
멀티헤비 실행 희망시기	직장 은퇴 이후	177	24
	자녀교육 완료 이후	213	29
	경제적 여유 시	261	36
	건강 나빠졌을 시	6	1
	불경기 시	5	1
	기타	73	10
멀티헤비 목적과 동기	심신의 안정과 휴식	262	36
	농어촌 지역민과 교류	26	4
	아웃도어 스포츠, 레져 등	9	1
	정주 위한 지식정보 습득	300	41
	자녀 전원교육 일환	14	2
	건강 및 요양 목적	64	9
	낭만적 시골생활 동경	24	3
	상속 및 기타	1	0

(4) 멀티헤비의 실행 희망 시기

멀티헤비를 실행하고자 하는 희망 시기는 전체의 36%가 경제적 여유가 생길 시에 실행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 교육이 완료된 이후(29%), 직장은퇴 후(24%)의 순으로 답하였다. 연령과의 관계에서는, 30~40대는 경제적 여유와 자녀교육을 중시하였고, 50대는 직장은퇴 후를, 그리고 60대에서는 기타 의견도 많이 제시하였다. 직업별 실행 희망 시기를 <표 4>에 나타내었는데, 직업에 따라 멀티헤비 희망 시기의 우선순위가 다른데, 관리직과 전문직이 직장 은퇴 후를, 자영업 및 무직 등이 경제적 여유를, 전업주부와 사무직은 자녀교육 완료 후를 멀티헤비 실행 희망시기의 제1순위로 꼽았다.

기타 자유의견 서술에서는, 일부 응답자는 시간적 여유나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또는 희망지역에 적절한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멀티헤비를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하였다. 개중에는 현재의 주택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흥미로운 지적도 있었다. 즉,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조치 등과 같이 농어촌 지역에 일정 규

19) 설문에서는 멀티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도시주민이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 등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농산어촌 등의 동일 지역에서 중장기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체재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도시의 주거와 함께 농산어촌에도 생활 거점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중장기란, 1~3개월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체재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적이고 반복적이란, 예를 들면, 매월 3일 이상 연간 누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 또는 연간 체재 기간은 1개월에 못 미치더라도 계속해서 5년 이상 실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해당 지역사회와의 일정한 관계란, 단순 별장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와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생활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하거나,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이나 지역 문화 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0) 소득수준(2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5)과, 관심도(관심없다: 0~매우관심있다: 2)를 연속변수로 치환하여 상관분석을 하면 Pearson의 적률상관값은 0.093, Kendal의 순위상관 tau값은 0.049로 나타났다.

21) 소득수준(2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5)과, 실행 의향(모르겠다: 0~곧 시작예정: 3)을 연속변수로 치환하여 상관분석을 하면 Pearson의 적률상관값은 0.121, Kendal의 순위상관 tau값은 0.076로 나타났다.

표 4. 직업별 멀티헤비 실행 희망시기 비교

직업	멀티헤비 실행 희망시기
자영업	경제적 여유(43%), 자녀교육 완료(32%), 직장은퇴(12%)
사무직	자녀교육 완료(37%), 경제적 여유(32%), 직장은퇴(21%)
전문직	직장은퇴(33%), 경제적 여유(31%), 자녀교육 완료(31%)
관리직	직장은퇴(56%), 자녀교육 완료(27%), 경제적 여유(7%)
전업주부	자녀교육 완료(40%), 경제적 여유(36%), 직장은퇴(14%)
무직/기타	경제적 여유(44%), 직장은퇴(26%), 자녀교육 완료(18%)

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여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부가되는 불이익이 없어져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귀농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받고 있는 일부 응답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귀농교육 후에 실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 멀티헤비의 목적과 동기

온라인카페의 특성 때문인지 '전원생활 정착을 위한 기술, 지식정보 습득'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41%로 가장 높은 가운데, 심신의 안정 등 여유로운 휴식을 위해서라고 목적을 답변한 비율도 36%나 되었다. 이들 두 항목을 합계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또한 여성이 심신의 안정(42%), 정주 정착을 위한 정보 습득(35%), 건강 및 요양(10%)의 순으로 답변한 반면, 남성은 정주 정착을 위한 정보 습득(43%), 심신의 안정(33%), 건강 및 요양(8%)의 순으로 답변하여 목적의 비중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기타 자유의견 기술에서는, 응답자의 일부는 시골 출신이라서 또는 외국생활을 오래해서 고향이 매우 그립기 때문에 멀티헤비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노후생활의 하나로 나이가 들어 조용하게 살고 싶다든가, 노후의 소일거리로 멀티헤비를 목적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일부 의견 중에는 다양한 체험의 일환으로 삶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싶다는 의견과, 가족들 간의 불화 해소를 위해 멀티헤비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3) 멀티헤비 희망지역과 소요시간

(1) 멀티헤비 희망지역

멀티헤비 실행 시 가장 희망하는 지역을 설문한 결과, 수도권을 희망하는 비율은 42%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표 5>는 가로축에 피설문자의 출신지를 세로축에 멀티헤비 희망지역을 크로스 집계하여 나타낸 분할표이다. 멀티헤비 희망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자동차로 약 1~3시간 정도 소요되는 공간적 거리를 고려해서 6개의 광역시를 나누어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멀티헤비 희망 소요시간으로 1~2시간을 , 허용 소요시간으로 2~3시간을 가장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출신지와 멀티헤비 희망지역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정[22]을 실시하였는데, 표에서 보는

22) 통계학에서 분할표 상에서 각 범주(cell)의 기대도수가 5 미만의 값을 가지면 Yates의 연속성 수정을 권장 한다. 여기서는 엄격한 통계적 검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단순 카이제곱값($\chi 2$)과, 자유도(d.f), 유의값(p)만을 표시하였다.

표 5. 출신지 및 멀티헤비 희망지역 분할표 (N=270)

출신지 \ ←희망지→	강원	경기	대전	인천	충남	충북
강원	15	6	0	0	2	1
경기	8	22	0	1	3	4
경남	2	5	0	0	2	0
경북	7	6	0	0	1	2
광주	0	6	0	0	0	0
대구	0	2	0	0	2	3
대전	2	0	0	0	1	0
부산	2	2	0	0	2	1
서울	6	18	0	4	6	6
울산	0	1	0	0	0	0
인천	4	1	0	4	2	2
전남	6	14	0	2	5	1
전북	4	12	1	0	1	1
충남	3	7	1	1	19	5
충북	2	7	0	2	0	12

(↑출신지↓)

(χ^2=165.343, d.f.=70, p=0.00)

표 6. 멀티헤비 희망 소요시간 및 허용 시간 분할표 (N=735)

희망소요시간↓ \ ←최대 허용 소요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시간	59	175	11	1	1
2시간	4	170	160	8	16
3시간	0	5	34	20	14
4시간	0	0	1	11	4
5시간	1	1	0	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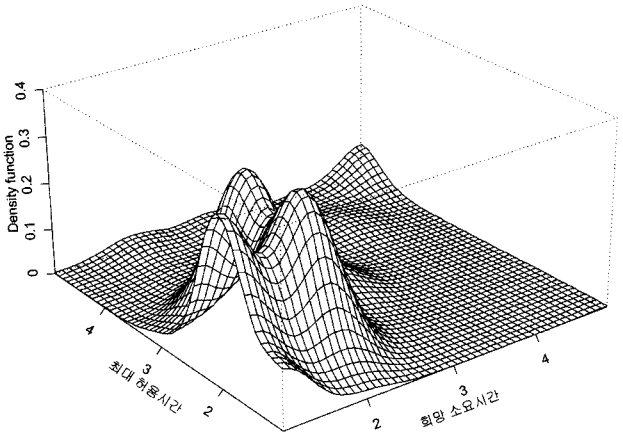

그림 3. 평활화 수법에 의한 히스토그램 분포

바와 같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출신 고향으로의 귀향본능의식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 준비하는 카페모임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 멀티헤비 희망 소요시간 및 허용시간

<표 6>은 희망 멀티헤비 대상지역을 방문할 시 교통소요시간(가로축)과,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통 소요허용시간(세로축)을 크로스 집계하여 나타낸 분할표이

다. 희망 소요시간은 1~2시간이 높고(82.3%), 허용 소요시간은 2~3시간이 높다(75.7%).

한편, <그림 3>은 <표 5>를 평활화(smoothing)[23] 수법에 의하여 처리하여 이들 두 개의 시간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희망 소요시간과 허용 가능시간과의 관계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각 희망 소요시간에 1시간 정도 많은 시간이 허용시간으로 선호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도시민이 멀티헤비 희망지역으로 자동차로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을 선호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허용시간은 그보다 1시간 정도 많은 2~3시간이라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4) 멀티헤비 시 농어촌 지역에서의 희망활동

멀티헤비 시 농어촌 지역에서 희망하는 활동을 <그림 4>와 같이 14개를 나누어, 이중에서 희망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3개 이하로 선택[24]하도록 하였다. 그림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이 '채원 활동'으로, 가정텃밭 등의 원예활동을 희망하였다. 흥미롭게도 '지역 특산물이나 생산품'에 있어서 '구매'를 희망하는 비율(4.3%) 보다는 '생산 · 판매'를 희망하는 비율(13.3%)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자유의견 기술에서는, 전원에서 직업을 갖고 싶다는 의견도 보였는데, 예컨대 "글쓰기, 트레킹 코스 개발, 선교활동, 지역 명소개발" 등을 꼽기도 하였다. 또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봉사하거나 지역에 봉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5) 멀티헤비 시 농어촌 지역 희망 빈도수 및 거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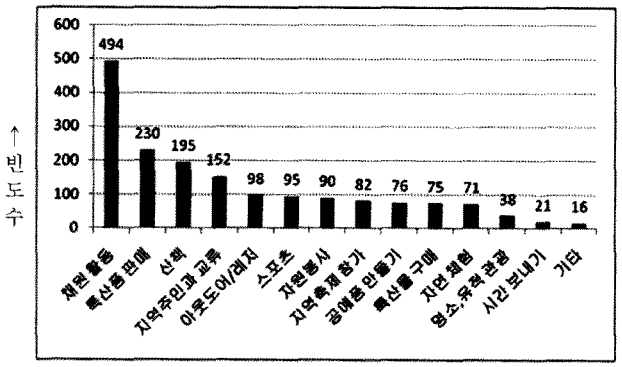

그림 4. 멀티헤비 시 농어촌 지역에서의 희망활동(N=1,733)

(1) 멀티헤비 시 농어촌 지역으로의 희망 빈도수

<표 7>과 같이 5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먼저, 희망 방문빈도수에 있어서 주말이나 휴일 등을 이용한 방문이나 체재를 희망하는 비율(48%)과 1년의 대부분을 지내고 싶다는 비율(30%)로 대별되었는데, 이들이 전체의 약80%를 차지하였다. 연령과의 관계에서는, 고령층일수록 장기체류를 희망하는데, 집계를 보면 <1년의 대부분을 지내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60대 이상이 많았고(44%), 50대(31%), 40대(28%), 30대(18%)의 순이다.

표 7. 희망 방문빈도수 및 희망 거주형태 (N=735)

구분	세분(level)	빈도	비율(%)
희망 방문 빈도	주말, 휴일 등의 활용 방문(3일 이내)	353	48
	연간 휴가기간 등의 활용 방문(2주 이내)	45	6
	장기 휴가 등의 활용 방문(수개월 이내)	85	12
	대부분의 시간을 체재(연간 대부분)	217	30
	기타	35	5
거주 형태	농가주택 구매 후 리모델링 등	368	50
	택지 매입 후 신축 등	238	32
	농가 빈집(폐가)의 임대 등	76	10
	지역 주변의 펜션 등 숙박시설 활용	13	2
	친인척 등 지인 주택 등 활용	10	1
	기타	30	4

기타 자유의견 기술에서, '2주는 수도권에서 2주는 농촌에서' 지내고 싶다든가, '3일은 서울에서 3일은 시골에서'와 같이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중에는 '농번기에는 농촌에서 거주, 농한기에는 도시에서 거주'라는 의견을 개진한 경우도 있었다.

(2) 멀티헤비 시 농어촌 지역의 거주형태

멀티헤비 시 농어촌 지역에서 어떠한 거주형태를 희망하는지 설문한 결과, 농가주택을 구매하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택지 매입 후 주택이나 체재시설을 신축한다는 의견도 32%나 되었고, 농가나 폐가를 임대하여 활용하겠다는 의견은 10%였다.

기타 자유의견 기술에서는, 응답자 자신의 고향집을 활용하고 싶다든가, 또는 농가 인근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멀티헤비를 실행하고 싶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소형 이동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시설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거주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집은 임차하되 땅은 매입하여 농사를 짓고 싶다는 의견, 우선 임대하여 살아보고 구매 또는 신축을 결정하겠다는 의견, 초기엔 임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축하고 싶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멀티헤비 정비조건에 관한 사항

1) 자연환경 정비조건에 대한 중시도

멀티헤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자연환경의 정비조건을 <표 8>처럼 9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중시도를 3단계(중시 않음~매우 중시)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중시도의 순서는 자연경관이 좋은 곳, 취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곳, 생활기반이 정비된 곳, 거주지와 근접한 곳의 순으로 나타났다.

23) 확률밀도함수에 기초한 비모수평활화수법(Nonparametric Smoothing Method)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24) 응답자의 빈도 분포를 보면, 3개 선택 응답자가 455명(전체 응답자의 61.9%), 2개 선택 91명(동 12.4%), 1개 선택 186명(동 25.3%), 0개 선택 3명(동 0.4%)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은 2.35이다.

표 8. 멀티헤비 시 자연환경 정비조건의 중시도

자연환경의 정비조건	중시도※ 평 균
① 자연경관이 좋은 곳	1.52
② 자신의 취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곳	1.35
③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	1.05
④ 출신지나 친 · 인척 또는 지인이 거주하는 곳	0.51
⑤ 생활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	1.07
⑥ 지금까지 방문 경험상 좋았던 곳	1.01
⑦ 지인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권유된 곳	0.58
⑧ 지역의 이미지나 지명도가 높은 곳	0.44
⑨ 행정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	0.79

※중시도-매우중시: 2점, 약간 중시: 1점, 중시 않음: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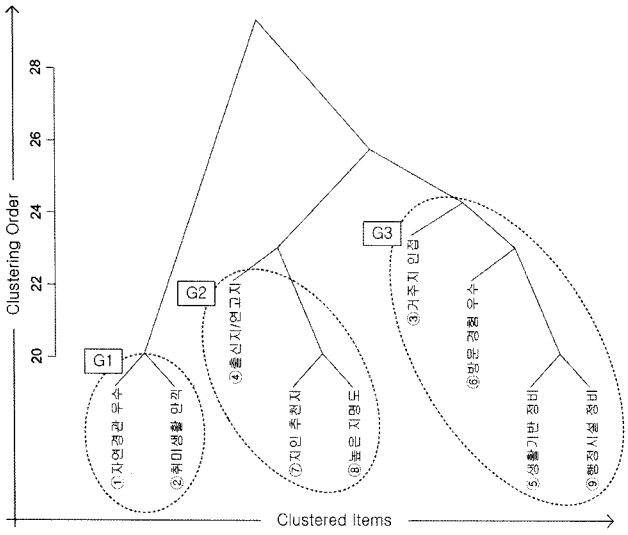

그림 5. 자연환경 정비조건에 대한 중시도 군집분석

이들 9개 항목에서 응답자는 어떠한 항목을 유사하게 평가하는지, 환언하면 어떠한 항목이 유사하게 그룹핑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설문자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군집분석[25]을 실시하였다. <그림 5>는 군집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3가지의 집단으로 그룹핑[26]됨을 알 수 있는데, G1은 {① 자연경관 우수, ② 취미생활 만끽}을 중시하는, 말하자면 '자연(nature)'을 중시하는 그룹이다. 반면, G2는 {(⑦ 지인 추천지, ⑧ 높은 지명도), ④ 출신지}처럼 '지역(region)'과의 연고나 지명도를 중시하는 그룹이고, 나머지 G3은 {(⑤ 생활기반 정비, ⑨ 행정시설 정비), ⑥ 방문경험, ③ 거주지 인접}처럼 '시설(facility)'이나 '접근성(accessibility)'을 중시하는 그룹이다.

25) 여기서는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이용하였으며, 군집분석 방법의 기준이 되는 거리(distance) 척도는 '평균(average)' 거리를 채택하였다.

26) 상기 계층적 군집분석 외에도 k-means, Partitioning Around Medoids 등 여타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는데, 3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설명력이 가장 좋았다.

표 9. 인문환경 정비조건 빈도수 (N=2,064)

인문환경의 정비조건	빈도수
1.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여유 확보	288
2. 거주지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입수	193
3. 농촌의 매력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에 노출	61
4. 농촌 가옥이나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 가능	480
5. 농촌의 빈 집(폐농가) 등에 대한 중개나 알선 체제	98
6. 농촌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 정비	201
7. 희망 지역 주변에 병원 등 의료시설 정비	196
8. 희망 지역 주변의 쇼핑 등 생활 편의시설 정비	49
9. 가족의 이해나 동의 필요	217
10. 시험적 체험 프로그램 정비	80
11. 상담 지원 등 귀농 운영체제 정비	77
12. 프라이버시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유지	120
13. 기타	4

2) 인문환경 정비조건에 대한 중시도

상기 자연환경 정비조건과 유사하게 인문환경의 정비조건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표 9>와 같이 13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3개 이하로 답변토록 하였다.

빈도 순위를 보면, '4. 농촌가옥이나 토지의 저렴한 구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적인 여유, 가족의 이해나 동의, 교통수단의 접근성, 의료기관의 정비 순이다. 반면, 쇼핑 등 생활편의시설의 정비나 희망하는 농어촌 지역의 매력을 알 수 있는 정보에의 접촉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다. 유통시설의 확충과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타 자유의견 기술에서는, 농촌에서 폐교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를 멀티헤비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이질감(텃세)을 해결하거나 배타적 풍습을 타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의견도 있었다.

3) 농어촌의 지역 정보에 대한 필요도

멀티헤비 실천 시 해당 농어촌의 지역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입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표 10>과 같이 12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필요 정도를 설문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 종류의 우선순위는 자연조건에 대한 정보, 의료복지에 대한 정보, 주민 커뮤니티 등에 관한 정보, 교통 정보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연조건에 대한 정보 및 의료정보를 제외하면 각 정보에 대한 필요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기타 자유의견의 기술에서는, 귀농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는 의견, 도농교류와 관련된 네트워크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에서의 범죄인 또는 범죄현장 유무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도 해당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자금, 행정 등) 정보, 해당지역의 특성이나 발전사, 유명인사 등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표 10. 멀티헤비 시 농어촌 지역 정보에 대한 필요도

농어촌 지역 정보의 종류	필요도※ 평 균
1. 지리조건 및 자연조건(지형, 식생, 기후 등) 정보	1.62
2. 지역 내 또는 지역까지의 교통 정보	1.28
3. 시설 이용자의 경험 및 평가 등에 관한 정보	1.11
4. 활동과 시설의 주최자, 운영자 등의 정보	1.07
5. 활동과 시설의 설비, 서비스, 메뉴 등의 정보	1.19
6. 활동과 시설의 입지, 이용조건 등의 정보	1.00
7.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	0.96
8. 지역의 의료, 복지 등에 관한 체제 정보	1.41
9. 지역의 부동산 정보	1.09
10. 지역의 역사, 전통, 풍습에 관한 정보	0.97
11. 지역의 명산물, 특산품 등에 관한 정보	1.15
12. 지역의 주민, 커뮤니티, 인격 등에 관한 정보	1.31

※필요도-매우필요: 2점, 약간 필요: 1점, 필요 없음: 0점

4) 해당 지자체의 지원 사항

멀티헤비 정착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시급히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그림 6>과 같이 9개 항목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3개 이하를 선택토록 하였다. 집계결과, 인프라 정비, 귀농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세공과금 등 멀티헤비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멀티헤비에 필요한 상담창구의 설치 ·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유의견 기술에서는, 유휴지 활용의 하나로 노는 땅을 장기저금리로 구입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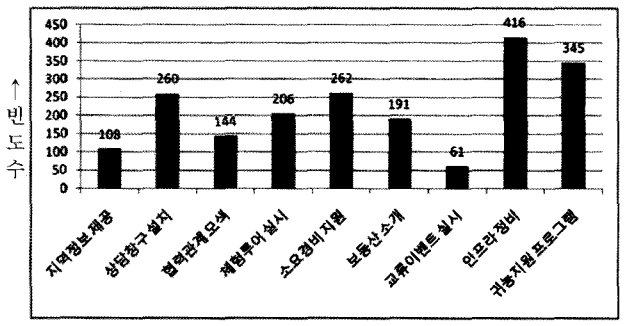

그림 6. 멀티헤비 시 행정 지원 희망 빈도수(N=1,995)

4. 분석결과 종합

우리나라 귀농 및 전원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는 30대 이상의 온라인카페 도시주민 7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멀티헤비라는 새로운 주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대체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2) 멀티헤비 실행 시 가장 희망하는 지역은 수도권으로 전체 대비 42% 정도이며, 출신지와 멀티헤비 희망지역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출신 고향으로의 귀향의식이 대단히 높았다. 또한 도시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멀티헤비 지역으로 이동시 주로 희망하는 소요시간은 1~2시간이나 희망 허용시간은 2~3시간으로, 이들이 인내할 수 있는 소요시간은 1시간 남짓하다는 것이다.

3) 멀티헤비 시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희망하는 활동은 채원 활동이며, 다음으로 지역 특산물이나 생산품의 생산과 판매를 희망하였다.

4) 멀티헤비 시 희망 방문 빈도수에 있어서는 주말이나 휴일 등을 이용한 방문이나 체재를 가장 희망하는 비율(48%)과 1년의 대부분을 지내고 싶다는 비율(30%)로 대별되었는데, 연령과 관계가 깊어 고령층일수율(장기체류를 희망하였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거주형태는 농가주택을 구매하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택지 매입 후 주택이나 체재시설을 신축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되었다.

5) 멀티헤비 정착을 위한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정비조건을 보면, 자연을 중시하는 그룹(Nature), 지역과의 연고를 중시하는 그룹(Region), 시설과 접근성을 중시하는 그룹(Facility)으로 3가지로 정리되었다.

6) 인문환경의 정비조건을 보면, 농촌가옥이나 토지의 저렴한 구입, 시간적인 여유, 가족의 이해나 동의, 교통수단의 접근성, 의료기관의 정비 등의 순으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멀티헤비를 위한 농어촌의 지역 정보에 대한 필요도를 보면, 자연조건에 대한 정보, 의료복지에 대한 정보, 주민 커뮤니티 등에 관한 정보, 교통정보의 순이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희망 지원 사항에서는, 인프라 정비, 귀농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세공과금 등 멀티헤비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도시민이 그들의 생활터전인 도시지역을 정주무대로 하면서(거점주택), 농어촌 지역 등 비도시지역을 왕래하면서 거주하는(활동주택) 주생활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진국의 동향을 참고하여, 이를 반정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멀티헤비(테이션)란 이름을 빌려 향후 국내 도입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반정주란 정주로의 이행 단계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하는 '정주'와 잠시 머무는 '방문' 사이에 위치하는 동태적 형태의 거주패턴을 말한다. 한편, 멀티헤비 대한 우리나라 수도권 도시민의 수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논점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멀티헤비의 국내 도입 및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면, 5가지 측면(인구구조, 사회경제, 라이프스타일, 관광패턴, 주택시장)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도입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관건은 멀티헤비가 경제상황과 각종 정책(특히 주택 및 농어촌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 때문에 이들 변수가 향후 우리나라 멀티헤비의 논의 및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이다.

다음으로, 멀티헤비의 수요 특성 분석결과, 멀티헤비와 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대체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행 의사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설문대상자가 귀농 및 전원생활에 관심을 가진 온라인카페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불특정 일반 도시민의 견해보다는 멀티헤비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설문결과는, 수도권에서 멀티헤비 실현 가능지역, 즉 활동주택의 희망지역은 자동차로 대부분 1~2시간에 위치하는 지역을 희망하며, 교통 여건에 따라 1시간 정도는 인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추측컨대, 향후 국내 멀티헤비의 정착화 과정에는 적잖은 문제점도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과연 이러한 멀티헤비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 가정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2) 국민적 정서로 말미암아 비록 농어촌에 적잖은 빈농가나 폐가가 있을지라도 얼마나 이를 외부인에게 임대나 매매할 것인가, 3) 도시생활의 편리성을 희생하고 싶지 않으려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있어 과연 얼마큼의 사람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전원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4) 멀티헤비가 진전되어 가령 주민등록제도가 바뀌어, 예컨대 복수지역에 주소지를 갖는다면(현재는 1개소만의 주소지) 어느 지역에 과세를 해야 할 것인가, 5) 멀티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휴가제도와 같은 사회제도의 손질도 궁극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6) 멀티헤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점 등이다.

상기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사실 어느 것 하나라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멀티헤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쩌면 시기상조일 수 있다. 분명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특히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일본[27]의 경우만하더라도 멀티헤비와 관련된 논의와 연구, 제도보완 및 행정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분명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상황의 변화가 있고, 따라서 멀티헤비 관련 논의와 추진의 이점이 숨어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라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주시하고 이에 동반한 주거정책을 어떻게 유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멀티헤비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한 가운데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과연 얼마큼의 피설문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하였냐는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멀티헤비로 명명한 용어에 대해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념 정립이 보완되어야 하리라 본다.

27) "한국은 총론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농촌개발 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윤원근, 2007: 125)

참 고 문 헌

1. 김익환 · 장한섭 · 김영민(2009)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응용학회 12(1), 51-59.
2. 김태연외(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환경 사업 개선 메뉴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을 중심으로.
4. 박재길 · 이동우(2002) 도 · 농통합형 정주기반 구축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 국토연구원.
5. 서수정외(2003) 도농통합형 주거단지 계획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주택도시연구원.
6. 송미령(2006)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정책의 도전과 과제, 지역경제, 6-20.
7. 송미령외(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설문조사 결과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오현석(2004) 서유럽 농촌관광의 발전과 시사점, 국토 272, 42-50.
9. 유기준(2009)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전략과 실제, 일본문화학보 40, 387-405.
10. 윤성이(2005) 녹색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3(3), 243-259.
11. 윤원근(2007) 일본 농촌개발의 정책방향과 시사점, 농어촌과 환경 94, 125-136.
12. 장면주 · 최동주(2006) 영국 · 일본의 농가민박의 발생요인과 전개과정, 농촌관광연구 13(2), 63-84.
13. 장익근(2007)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과 한국농촌공사의 역할, 농어촌과 환경 94, 43-51.
14. 황한철(2006) 농촌토지의 계획적 관리방안, 국토 294, 25-34.
15. 國土交通省國土計畫局(2005)「二地域居住」の意義とその戰略的支援策の構想.
16. 國土交通省廣報誌(2006) 都市と農山漁村の「二地域居住」への提言-多様なライフスタイルを求めて, 國土交通 2月護, 14-17.
17. 國土交通省都市 · 地域整備局(2008) 都市農山漁村連携交流推進調査報告書.
18. 內閣府政策統括官(2006) 少子化社會對策に關する先進的取組事例研究報告書.
19. 總務省自治行政局過疎對策室(2005) 過疎地域における交流居住にむけたニーズ分析に關する調查.
20. 農林水產省農村振興局(2005a) 半定住人口による多自然居住地域支援の可能性に關する調查報告書.
21. 農林水產省農村振興局(2005b) 半定住を活用した地域資源保全への都市住民の促進方策についての檢討報告書.
22. 日本總合研究所(2007) 新しいライフスタイルの創出と地域再生に關する調查研究報告書.
23. 日本住宅協會(1987) 特集/マルチヘビテーション, 住宅 9月護, 2-3.
24. 過疎問題懇談會(2004) 今後の過疎對策について-後期5カ年計畫の推進に向けて.
25. 財團法人ハイライフ研究所(1998) 複數居住への期待と現狀

접수일(2009. 12. 17)
게재확정일자(2010. 2. 10)